

녹음자료 3-1

피면접자	면접자	조사일	소요시간
○○어린이집 선생님(선, 선2)	김영란(김)	2003. 3. 28	약 20분

김: 여기서 일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?

선: 저는 이번이 5년째예요

김: 5년째요? 그럼 이 지역에 있는지는 얼마나 된거예요?

선: 이제 6년째요.

김: 6년째요.. 아, 그럼 초기에도 계신거네요?

선: 초기 마지막, 이게 3월달에 개원을 했거든요.

김: 예

선: 그다음해 1월달에 제가 왔어요. 그니까 10월 빼고, 그니까 2월, 2개월은 제가 1회였죠. 여기에서

김: 예

선: 그전에 있던 선생님들은 이제 다 가시고

김: 죄송하지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

선: 만 28이요

김: 결혼하셨어요?

선: 예

김: 어, 여기서 근무하시고, 여기서 일하는 보육사 자격증 갖고서,

선: 저 아동학과 나왔거든요

김: 예 예

선: 그래서 보육사 1급 자격증 있어요.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하고

김: 아, 그러세요. 여기, 여기서 주로 활동하는 아이들이 몇 살에서 몇 살 사이에요?

선: 만 3세에서 만6세까지

김: 예

선: 3, 4, 5, 6세 그니까 4, 5, 6, 7세 이렇게 한국나이로

김: 인원이 몇 명정도나 되나요?

선: 한 65명

김: 65명이요? 선생님들은?

선: 선생님, 저희 인제 애들은 네 반이구요 그니까 선생님 네 분에, 주례선생님 한 분, 원장선생님 한분, 총무선생님 한분, 이렇게 해서 일곱분 근무하고 계세요

김: 보통 어떻게 자격이 되요? 거기 일, 저기 아이들 들어오는 자격이?

선: 자격이요? 먼저 저소득 애들 먼저 받구요, 그다음에 저희는 선교차원에서 하거든요. 그래서 인제 교회랑 연관돼 있으니까

김: 신자의 자녀들?

선: 이제 꼭 그렇다기 보다는, 들어오신 분에 한해서 이제 전도하는 위주로 하죠. 첨에 뽑을 때 하는게 아니라, 신자, 성도분들 자녀들 먼저 하는게 아니라 다 인제 이렇게 선착순으로나 하거든요. 먼저 입학원서를 하신분들에 한해서, 그런 다음에 안 믿는 분들은 저희가 전도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.

김: 저기, 저소득층 자녀는 몇 퍼센트 정도 되요?

선: 저소득, 거의 반 이상이 저소득인거 같아요.

김: 그러면은 그 여기 나오는, 내는 수업료 차이가?

선: 절반

김: 절반, 지금 일반가정 아이들은 얼마를 내고 있죠?

선: 그니까 저희 원이 다른 원에 비해서 원비가 쯤 싸거든요. 저렴하거든요. 같은 섬이라고 해서, 그래서 저희 가장 어린 반은 13만원, 일반 13만원 글고 인제 그 다음 5세 6,7세는 10만원씩, 그리고 저소득은 7세 무상교육해서, 7세는 저소득은 7세는 무상교육으로 그냥 다니고 있구요. 그리고 그 절반

김: 예, 아니 여기 말고 또 있어요? 어린이집이요?

선: 어린이 집은 없고 초등학교 병설유치원

김: 그죠, 아, 초등학교 병설유치원. 그거는 주로 어떤 아이들이 가요?

선: 그야 보통 똑같이

김: 거기는 얼마 받는데요?

선: 잘 모르겠어요.

김: 어

선: 거기는 얼마 받는지. 거기는 대신 원비는 4만원, 2만 5천원 한달에

김: 그래요?

선: 모르겠어요. 그 정도 들었는데, 근데 그 잡비가 쯤 많이 들어가죠. 간식비 따로 있고, 머 물건 구입하고 머 그렇게, 저희는 원비만 내버리면 아무, 그런 잡비같은게 전혀 안 들어가거든요. 간식비, 글고 저희가 좋은점이 식단이 쯤 잘나와요. 식단표가. 도시에서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도, 근무했었던 분들도 이렇게 잘나와요. 쯤 원장선생님이 그런 면에서는 잘하세요. 다른 면에서도 잘하시지만

김: 아이 부모들의 직업이 대체로 어때요?

선: 어부, 어촌에서 많이 하시고 아니면 이제 관공서나 직장 농협, 읍사무소 아니면 농사짓거나 다 어촌에서 하시는 분들이죠

김: 네, 보통 아이들은 여기 같이 있는 시간들이 어떻게 되요?

선: 세시에 끝나고요

김: 다요?

선: 예, 종일반은 여섯시까지

김: 글고 쯤금더 비싼가요?

선: 이만원 추가, 원비에서 이만원 추가요

김: 그러면은 부모들이 다 데리러

선: 예예, 이제 3시까지 할 때는 우리가 차량운행을 하는데, 종일반 애들은 몇몇 안돼요. 다해서 4명이나 5명 이렇게

김: 그러면 3시까지 오는, 3시하고 가는 애들의 부모는 하여튼 집에 가면 누군가가 있는 애들이네요.

선: 네, 부모님이, 어머니가 계시거나 인제 머 할머니, 근데 이제 가끔 여기 바다에서 물때가 있잖아요. 이제 밀물 썰물, 물때가 있어서 바다에 나가셨다가 이제 못들어오면 그냥 하루씩 종일반 시켜달라고 이렇게 연락오시고 그래요.